



2017.VOL.127

COYTN INSIDE

KEY FOREIGN STOCK MARKET INDEX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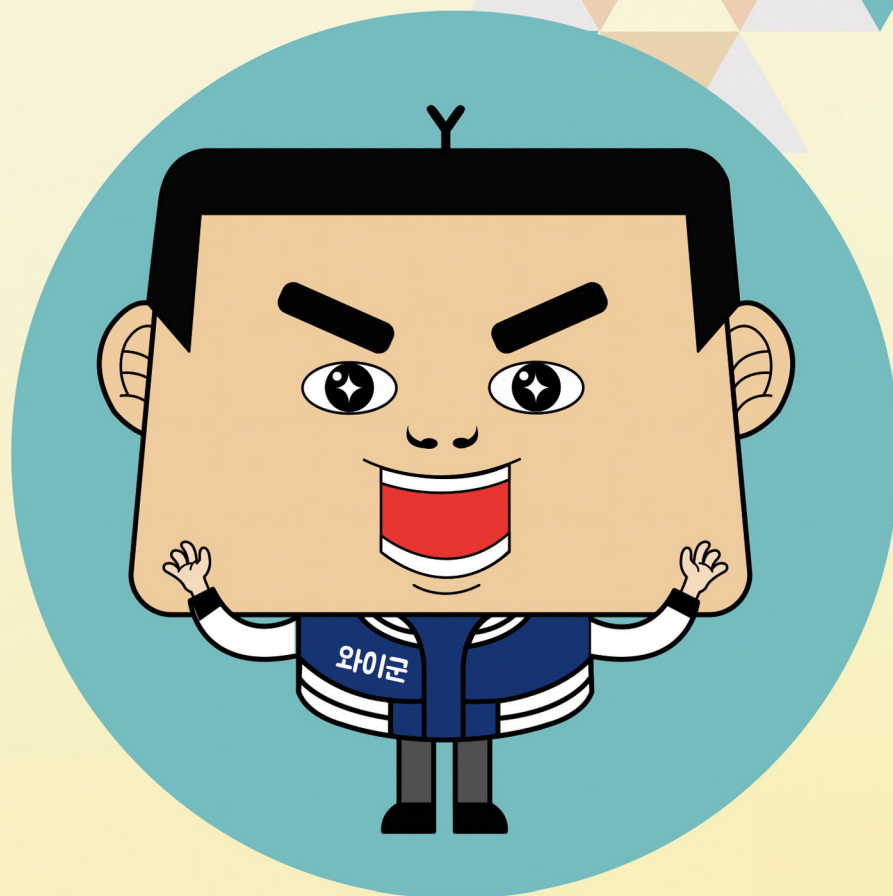
	Most Recent	Week's %Chg.	Year-to-Date %Chg.
Intercontinental	3.47	+2.27	
Shanghai	3.66	-2.27	
London SET	2.27	-2.49	
Bombay Senses	2.49	-1.21	
Brussels Bel-20	1.21	-1.21	
Buenos Aires Merval	7001.81		
Caracas	966.21		
Colombo All Share	6475.76		
Copenhagen OMX20	350.18		
Dublin ISEQ	3360.65		
EUROSTOXX SXSE	10708		
EUROSTOXX SXSE	8440.52		
Frankfurt DAX	2235		
Helsinki OMHX	818		
Korea KOSPI	4472		
Long Kong Hang Seng	51		
Istanbul IMKB	16		
Jakarta Composite	24		
Shanghai All Share	6118.28		
Shenzhen CSI	10111		
London FTSE-100	6897.77		
Madrid IBEX35	43617		
Manila Composite	23564		
Mexico City IPC	814.93		
Nairobi NSE All Share	180.95		
Nasdaq Composite	648.47		
Nikkei CAC	4807.95		
Santo Domingo	3031.32		
Singapore S&P	46517		
Shanghai S&P	168		
Shenzhen S&P	504.75		
Stockholm OMXS	3167		
STOXX Europe 50	3167		
STOXX Europe 50	3167		
Sydney S&P/ASX 200	1.30		
Taipei Weighted	8329.5		
Tel Aviv 100 Index	1359		
Tokyo Nikkei 225	19		
WTO S&P/TSX	13		
Vienna ATX	239		
Wellington NZSE-50	59		
Zurich Swiss	49.83		
LY	48.25		
LP	19.09		
WZ	8.51		

4

삼성, LG, HP 노트북 살 땐?

오직 대학생만 가능한 할인 이야기! 교육할인스토어

와이군 닷컴 (www.ygoon.com)



CONTENTS

03Mar - 04 Apl 2017/vol.127

SIDE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찰스 파지노

26 홍경한 | 찰스 파지노가 구축한 새로운 세계

앵커의 변신 _ 이세나 앵커

28 김여진 | 흑과 백을 아우르는 당찬 여성, 신세대 앵커 이세나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_ 어려운 음악 vs. 쉬운 음악

30 유석현 | 어려운 음악 vs. 쉬운 음악

최광희의 영화가 바라본 세상 _ 원티드

32 최광희 | 〈원티드〉와 아름다운 퇴장

넘버 앤 톱 _ 양방언

34 김여진 | 청년 양방언

YTN 이모저모

38 YTN 이모저모

IN

In Newsquare

2017 간부워크숍 - 우리는 무슨 꿈을 꾸는가? | 김경아 04
YTN의 새로운 플랫폼 〈복지물〉 | 남궁용 06
아기와 함께 출근~ 걱정 없이 일해요~ | 서영진 08

Exclusive Now

대기업이 달걀 사재기? | 최기성 10
값은 싸지만 싸구려는 아니다?! | 조은지 12

이 방송 궁금하다

신개념 과학 버라이어티 〈도전하쇼〉 | 정재기 14
굿 뉴스! YTN을 기대합니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 김혜민 16

지국은 지금 _ 대구지국

노란 산수유 피는 봄이 왔습니다 | 이윤재 18

World Wide YTN - 말레이시아 출장기

초년 기자 말레이시아 출장기 | 박한울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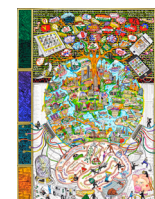
사이언스TV 시청자위원에게 듣는다

사이언스TV에 바란다 | 황중연 22

부서탐방 _ 법무팀

YTN 가족은 법무팀의 클라이언트입니다 | 한혜준 24

1월, 2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25



표지 찰스 파지노 작 Mind Your Money in Our Digital World 56 x 71cm 3D Limited Edition Serigraph on Paper 2016

대중 문화적 풍경을 시각이미지로 치환해온 찰스 파지노의 작품들은 정밀한 묘사, 입체감, 친근한 스토리, 일상의 재현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그는 작품 내부에 익히 인지 가능한 풍경과 상징적 건축물, 자연물, 특정한 상황 등을 이입함으로써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시공의 사실성을 말하고, 이와 같은 이미지들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이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에게 추억과 기억의 소환을 재촉한다. 즉, 시각경험의 축진을 통한 이야기의 재발견을 유도하는 셈이다.



2017년 간부 워크숍

우리는 무슨 꿈을 꾸는가?

김경아 팀장 | 기획조정실 인사팀



처음엔 막연했다. 새로 부여받은 내 직무도 난감한데 신입간부 리더십 함양과 회사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하는 워크숍이라니... 코끼리 다리 만지기처럼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됐다. 그러나 나 역시 첫 보직을 받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만큼 신입간부와 앞으로 나올 새 리더들에게 체계화된 조직관리 교육으로 새 임무 연관력을 돕고 조직의 비전과 목표 공유의 시간을 통해 리더의 자질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더 늦출 수 없는 인사팀의 과제였다.

지난 1월 인사를 통해 새롭게 재편된 신입 간부들은 입사 20년 전후의 베테랑들이지만, 조직의 리더로서 3가지 이상의 새로운 역량이 요구됐다.

이 모든 것을 갖춘 리더가 되려면 리더도 리더의 방법을 배우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간부워크숍의 취지였다.

•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유하는 역량.

• 팀과 구성원에게 주어진 쉽지 않은 목표를 함께 노력해 달성하게 만드는 코칭 능력.

•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인사평가와 평가 결과를 구성원들이 불만 없이 수용하게 만드는 공평무사 의식.

간부워크숍은 『우리는 무슨 꿈을 꾸는가?』라는 주제 아래 간부들은 물론 사장님, 상무님 이하 임원들 모두 바쁜 일정을 미루고 참석했고 무엇보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지국장들 대부분 이른 아침부터 회의장에 도착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워크숍은 조직역량 분야의 전문가, 뉴미디어 분야 전문가를 초빙한 외부 강연과 각 실국 단위별 주요 사안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C-tech 김찬배 연구소장의 '초경쟁 시대 기업의 생존전략과 리더십 사고함양'으로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한 YTN의 전략방안과 그 속에서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가치관과 역량에 대한 강의가 무려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재미와 흡입력이 상당했다. 특히 YTN의 인재상이 있느냐는 강사의 질문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인재상 마련에 바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SK경제경영연구소의 조영신 박사가 뉴미디어 시대 타사들의 디지털 혁신과 전통적 미디어와는 전혀 다르게 변모해가는 미디어 산업계의 패러다임에 대해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사례를 들며 설명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기회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외부강연에 이어 회사의 경영, 보도, 매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기획조정실, 보도국, 마케팅국의 주요 현안을 세밀하게 짚어보고 2017년 핵심 목표과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며 가감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YTN의 현재,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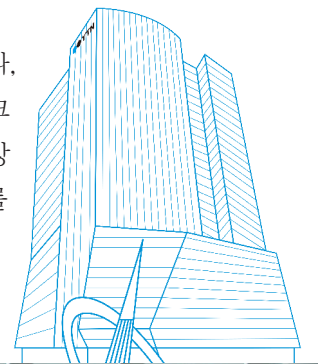
워크숍 종료 후 기획조정실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회사 경쟁력 강화와 부서운영을 위한 제안을 받아 검토했는데



주로 회사의 미래전략과 정책 수립 필요, 보도국 혁신 방안을 위한 제안, 모바일 시대 대응 방안, 부서운영의 제안사항, 그리고 YTN 인재상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 이 중 업무 연관성 있는 근무자 재배치 등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조치했고, 회사 미래와 생존을 위한 기구 신설이나 신사업 발굴, 타사 의존성을 끊고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방안, 탐사보도와 기획기사, 인터넷 기사 강화 등 중장기 및 단기 발전방안은 별도로 분류해 시행 여부 심사숙고 한 뒤 추진이 결정되면 전사적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워크숍 후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사람, 미래, 도전, 화합이라는 인재상이 탄생하게 됐는데 사람을 중시하며 바른 생각으로 책임을 다하는 인재, 균형 잡힌 시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보고 창의와 열정, 도전 정신으로 변화를 이끌며 소통과 배려로 어울림을 실천하는 인재상이 확립이 됐다. 비록 우리가 앞으로 무슨 꿈을 향해 나아갈지의 해답을 모두 찾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짧고 모자랐지만,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 상시적으로 리더 그룹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더 마련할 계획이다.





●● YTN 교육할인스토어
누적 거래액 100억 돌파!!
미디어사업국 기획사업팀



남궁 용 과장 | 미디어사업국 기획사업팀

YTN은 2015년 9월 대학생 전용 복지몰인 '교육할인스토어'를 시작했고,

2016년 1월 사이트를 재구축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올해 2월 20일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는 복지몰 1위 회사 이지웰페어보다 3년이나 앞당겨 이룬 실적이며, 유통업계에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다.

YTN의 탄탄한 인프라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YTN의 신성장동력으로 궤도에 오른 복지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온라인 쇼핑물에 간략히 설명하려 한다.

온라인 몰은 흔히 오픈마켓과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으로 나뉜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가 '오픈마켓'이고, 롯데닷컴이나 SSG가 '종합쇼핑몰'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옥션 같은 오픈마켓이 직접 입점시키는 대신, 플랫폼만 제공하고 판매 경

쟁을 시키는 데 반해, 종합쇼핑몰은 판매자를 직접 입점시키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동해 상품을 판매한다.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소셜커머스는, SNS로 구매자를 일정 수준 모아 서 저가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복지몰은 이와는 또다른 "폐쇄형 쇼핑몰"이다. 제조사 입장에서 가격을 낮추면 판매가 증가하나 시장가가 무너지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폐쇄형 복지몰은 가격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판매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재고



럽다고 실토하는 셈이다.

YTN 복지폐쇄몰은 이지웰, 베네피아 등 기존의 복지몰과도 또 다르다. 기존 복지몰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를 통해 물건을 살 수 있지만, 포인트를 써야 한다는 점이 반영돼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YTN 복지몰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최저가 제품만 파는 온라인 최저가 할인몰 개념에 가깝다.

복지 폐쇄몰을 이용하려면 다음 두 가지 특징을 숙지하는 게 좋다.

먼저, 최저가는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유통업계 특성상 가격이란 시간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입점 시점에는 최저가였더라도 오픈마켓의 가격이 무너지면서 최저가 랭킹이 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YTN 복지몰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MD들이 경쟁몰을 모니터링하며 수시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지만, 수만개의 제품을 관리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는 최신 기획전 이용을 추천한다. 폐쇄몰의 기본적인 가격 경쟁력에 이벤트성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폐쇄몰의 탁월한 경쟁력도 이른바 '폐업 땡처리 값'엔 당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부 쇼핑몰에는 가끔 미끼 상품이나 폐업 땡처리를 위한 소량 덩핑 제품이 등장하곤 한다. 정상 유통이 아닌 경우와 비교하며 고개 젓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 복지몰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큰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폐쇄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한다. YTN교육할인스토어는 특정 기관이 아닌 대학생이라는 사회 특정 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부각하며 상당한 진통 끝에 삼성과 LG 등 주요 제조사들로부터

복지몰 인정을 받아냈다. 그 덕분에 경쟁사보다 앞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YTN교육할인스토어는 120여 개의 대학교와 제휴한 국내 유일의 대학생 온라인 인증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5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생 커뮤니티나 사이트의 회원 수 보다 적은 13만 명의 회원이지만 철저한 인증과정을 거친 '대학생 회원'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대학과 하나하나 공식적인 제휴를 맺어 대학생을 겨냥한 독점적 쇼핑몰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안정적인 거래액을 유지하면서 장차 대학생 광고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YTN은 기존의 YTN 플랫폼 주요 이용자층인 40대 이상의 시청층 이외에 대학생 타깃을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다.

YTN은 교육할인스토어 이외에 임직원 복지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9개월 만에 '임직원 할인몰' 제휴를 맺은 회사는 3백 개, 회원은 5만 명에 육박한다. 수도권에만 집중해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 복지몰 서비스와 달리 YTN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제휴 기업들은 복지몰의 소비자이자 복지몰을 함께 키우는 공급 파트너, 온라인 플랫폼의 잠재적 광고주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복지몰을 운영하는 기획사업팀은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교준 팀장을 필두로 상품입점 및 운영을 하는 MD들이 소속된 상품기획 부문, 전략 및 플랫폼 업무제휴, 홍보, 마케팅을 하는 홍보기획 부문, 대학교 및 기업제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 부문, 사이트개발 및 운영, 정산, 지원을 하는 운영지원 부문이다. 업무 영역에 비해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앞당겨 이뤄낸 팀워크와 열정을 토대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여러 선배님들의 응원과 지원이 있기에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YTN이 지금까지 해왔고 잘하는 건 플랫폼 사업이며 YTN복지몰은 바로 YTN이 잘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SKY 어린이집 개원식



아기와 함께 출근~ 걱정 없이 일해요~

서영진 팀장 | 기획조정실 경영지원팀

요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직장인이나 워킹맘들의 고민거리 1순위는 '육아문제'다. 집안의 고민을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5백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YTN도 여러 우려가 있긴 했지만, 임직원의 육아 걱정을 덜어줘서 업무능률을 높이고, 복지도 늘리자는 목표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업무는 총무팀(당시 명칭)에게 맡겨졌다. 우리 회사에선 처음이라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당 연지사. 게다가 당시 총무팀은 차량관리 시스템 개선과 모바일 전자식권 도입 등 별이고 있는 일이 많았다.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두세 달 동안 짬을 내 자료를 모으고 다른 회사들의 직장어린이집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직장 어린이집도 운영하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장소부터 문제였다. 적합한 장소 찾기가 쉽지 않았다. 어린이집 성격상 저층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건물에선 도저히 만들 구멍이 없었다. 이웃으로 눈을 돌리던 중, 옆건물 DDMC에 있는 KT 스카이라이프의 소식을 듣게 됐다. 거기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했는데, 임직원들 일부 반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였다. 즉각 보고했고, 뒷선에

서 푸는 방법을 선택했다.

사장님이 직접 KT 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님을 만나 설득했다. 직장어린이집의 근본적 필요성부터, 함께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장점까지.

그 와중에 새로운 소식이 포착됐다. 이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또 다른 이웃 CJ E&M가 수요가 넘쳐, 확대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둘 대신 셋이 함께 들자고, CJ에도 동참을 제안했다. 세 회사의 니즈는 맞아 떨어졌고, 지난해 9월 MOU로 뜻을 모았다. 설치 장소는 DDMC 3층.

뉴스전문 YTN,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엔터테인먼트의

CJ E&M... 국내 최초의 '미디어 3사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함께 하는 준비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을 3사 합의를 거쳐야 했기에, 매 순간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아슬아슬했다. 심지어 중단 위기도 있었다. 스카이라이프 추천으로 첫 설계를 맡았던 'B'사가 엄격한 어린이집 설계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밀어붙일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이었다.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고 일정은 두 달 이상 늦어졌다. 결국 3사는 몇 차례 긴급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설계 경험이 많은 'O'사로 설계 시공사를 변경했다.

원아 모집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1~2세반 신청자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니만큼 '모두 수용'시키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협의가 두 달 더 이어졌다. 결국 영아반 정원을 늘리고, 이를 위해 설계도 일부 바뀌서, 신청 아동 모두를 수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변 여건상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야외 놀이터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대신 넓은 실내 유희실을 영아와 유아 2곳으로 나눠 설치하고, 상면 유리창으로 싱그러운

햇살과 함께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3월 2일, 세 회사가 힘모아 만든 'SKY어린이집'은 모두의 축하 속에 활짝 문을 열었고,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다.

• 한솔교육희망재단의 보육과정

1.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충실히 반영, 영유아의 다섯 가지 영역이 통합적으로 잘 발달하도록 하여 '별을 닮은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한다.
2. 프로그램 : 운영위원회 (연4회), 학부모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연1회), 만족도 조사 (연1회) 부모책임여주기 등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3. 중점 프로그램
 - ① 도담돌 : 영유아의 통합발달을 촉진하는 책 놀이 프로그램 (책과 이야기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예술·문학 활동 등)
 - ② 도담술 : 영유아의 바깥놀이에 중점을 둔 자연놀이 프로그램 (숲, 산책, 텃밭, 원예 활동 등)
 - ③ 도담별 : 반응성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 (아동-교사, 아동-아동, 아동-놀이감의 상호작용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중점)

• SKY 어린이집 소개

1. 위치/ 규모 : DDMC 3층 / 369평 (전용면적 231평)
2. 정원/학급수: 정원 99명 (1~5세) / 총7학급 (1.2세반만 2학급씩)
3. 운영 시간: 07:30 ~ 21:00 (매일 식사 2회 / 간식 2회 제공)
정규 운영 시간 (09:00~18:00) 전후로는 통합 보육
4. 운영 : 한솔교육희망재단 위탁운영 (원장, 교사, 조리사 등 교직원 총 20명)
5. 기타 : 운영위원회 (연4회), 학부모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연1회), 만족도 조사 (연1회) 부모 책 읽어주기 등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제빵업계 1위 'SPC그룹' 대기업이 달걀사재기?

최기성 기자 | 보도국 사회부

시작은 전화번호도 이메일 주소도 없는 한 줄짜리 짧은 익명 제보였다.
국내 제빵업계 1위 'SPC그룹'이 사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였지만, AI 파동으로 달걀 값이 치솟고 있는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취재에 나섰다.

YTN 보도 뒤 농림부는 '달걀 사재기'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소상공인협회는 "SPC그룹 달걀 사재기는 탐욕을 드러낸 행위"라며 성명서를 내고 비판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사재기 실태 보도에 그치지 않고, SPC그룹이 공정위 조사 무마를 시도한 것까지 보도해 대기업의 민낯을 고발했다.

• 시작은 뽕치기부터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사옥에 직접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달걀을 숨긴 곳을 찾기 위해 직원 주차장이 있는 지하 4층 ~ 지하 6층 사이를 오가며 '뽕치기'를 이어갔다. 몇 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직원들이 달걀을 실어 나르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마트에서 구입한 소매용 달걀 수백 판이 주차장에 쌓여 있었다. 화물차를 쫓아 경기도 성남 제빵공장에 도착하자 더 많은 소매용 달걀을 볼 수 있었다. 본사 뿐 아니라 외근 직원까지 사재기에 동원됐다. 추후 정산을 위해 확인증을 써주는 장면도 확보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이틀 동안 주차장과 공장을 오가며 사재기가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월21일 "SPC그룹 직원 계란 사들이기"는 보도를 통해 시중에 떠돌던 사재기 의혹이 사실임을 보도했다. SPC그룹은 일부 직원들이 '애사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보도는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했다. 직원 십여 명이 달걀을 운반하는 모습과 지게차, 화물차 기사 여러 명, 제빵 공장 여러 명 등 수십 명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였다.

• 잇따르는 내부 고발



첫 단독보도가 나간 뒤 SPC그룹 직원들의 내부 제보가 잇따랐다. 직원들에게 사재기를 지시한 내부 문건, 정산 과정을 안내한 문건 등을 확보해 검증 작업을 했다.

12월21일 스튜디오 출연, 추가 보도를 이어갔고 12월 23일에는 "SPC '달걀 사재기' 내부문건 입수... 거짓 해명에 은폐 의혹까지"로 추가 단독보도를 내보냈다. 결국 SPC그룹 임원들은 12월23일 오전 YTN 보도국을 찾아와서 사재기를 인정했다. 실제로 사재기에 나섰던 직원 수백여 명 이름과 구매 수량이 적힌 목록도 함께 공개했다. 애사심에서 했다는 해명이 거짓이었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기업의 민낯

YTN 보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2년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내용까지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내부고발자가 큰 용기를 내고 당시 은폐 사진과 대화 내용이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보해 준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 내용 진위를 확인한 뒤 "SPC 파리크라상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의혹...대표가 직접 지시" 단독보도를 했다. 대표까지 개입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정위 측에서도 해당 내용 진위 파악에 나섰다. SPC그룹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성역 없는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값은 싸지만, 싸구려는 아니다?!

조은지 기자 | 보도국 사회부

매력 없는 제보, 킬할까?...기다리면 복이 오리니!

커피 값은 올리고 원두 값은 내린 탐앤탐스!

“카페를 열려고 하는데요.”...훈신의 어리바리 연기

“고급 원두로 전면 교체”...30시간 만에 꼬리 내린 탐앤탐스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의 불법 배임혐의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제목의 1월 9일 제보. 탐앤탐스가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지만, 점주가 아닌 대중 입장에서는 별 매력이 없었다. 성난(?) 제보자를 달래며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사이, 20여 일이 흘렀다.

마침 탐앤탐스가 기습적으로 값을 인상했다. 최고 12%나 오른 음료도 있다. 첫 제보 이후, 원두 납품업체와 영업점주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 값을 올리는 동시에 원두를 싼 제품으로 교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가격을 올리더니, 원두를 싼 걸로 바꿨다고?

하지만 증거를 찾는 게 난항이었다. 일반인의 미각으로 원두의 풍미를 알기란 ‘하늘의 별따기’. 커피 업계에서는 원두 원가를 밝히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했다. 물증을 구하지 못하는 나날 끝에, 기존 원두업체 사장이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열었다. 재고만 소진하고 탐앤탐스에 더 이상 납품하지 않는다는 말, 원두 1kg당 가격은 1만7000원이라는 말, 새로 계약한 원두업체 단가는 1만500원이라는 말까지.

탐앤탐스와 새로 계약했다는 원두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카페를 열려고 하는데요, 얼마예요? 탐앤탐스에 들어가는 원두라고 들었는데 맞죠? 거긴 1kg당 1만500원이라고 하던데 개인 카페에도 그렇게 싸게 해주시나요?” ... 여우주연상 뽀치는 신들린 연기력을 발휘했다.

원두 업체는 어리숙한 카페 창업자라고 생각했나보다. “탐앤탐스랑 계약한 건 어떻게 아셨어요? 거긴 대량 구매라서 그 가격에 드린 거지, 일반 카페는 곤란해요. 탐앤탐스 원두 가격은 비밀로 해주세요.” 짜릿했다. 원두 업체의 증언으로 가격은 확인했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했다. 관계자 몇몇을 구워삶은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 출고 공장에서 새 원두업체의 납품 영수증을 찍은 사진, ‘1만500원’이 포렷했다. 원두 원가는 6500원 싸졌는데, 커피 값은 오히려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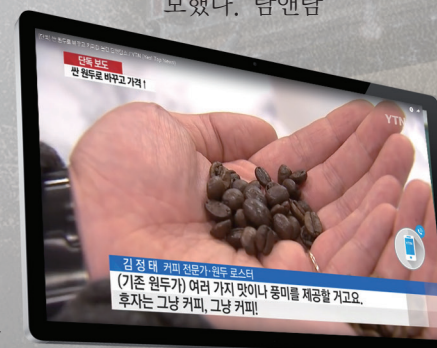
탐앤탐스 본사에 전화를 걸

었다. “대표님이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찢리는 게 있었는지(?) 만나서 인터뷰에 응하고 싶단다. 본사로 갔다. 심지어 대표가 서류를 한 묶음 들고 직접 나왔다. ‘보혐료를 착복한 게 아니다, 제보자가 질 낮은 악성 민원인이다’ 등등 해명이 이어졌다. 어리바리한 표정으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들었다. 설득했다는 듯 만족하는 임원들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원두도 바꾸신 거 맞아요?” 청산유수처럼 말하던 그들이 입을 닫았다. 당황한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정적이 흐르고, 값은 싸지만 결코 싸구려는 아니라는 대답을 받아냈다.

새벽 5시, 첫 보도가 나갔다. ‘싼 원두로 바꾸고 커피 값 올린 탐앤탐스, 소비자 분통’. 반응은 뜨거웠다. 포털 사이트의 많이 읽은 기사에 올랐고 불매 움직임도 시작됐다. 몇 시간 뒤 탐앤탐스는 ‘값싼 원두는 테스트 차원일뿐, 납품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 꼭지로 끝내려고 했는데 후속 기사를 쓰게 하다니... 분노를 끌어 모아 이튿날 나온 기사, ‘값싼 원두 안 쓴다던 탐앤탐스, 이미 곳곳에 납품했다’.

탐앤탐스는 결국 꼬리를 내렸다. 3월 1일 자로 기존 원두도, 바뀐 원두도 아닌, 제3의 고급 원두 (스페셜 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첫 보도 이후 30시간 만이다. 본사의 저질스러운 행태를 꾸짖고 바로잡을 수 있어서 통쾌했다.

P.S. 끊임없이 당근과 채찍을 주신 이만수 캡. 기사를 깔끔하게 손질한 ‘커피 전문가’ 양일혁 바이스. 쉬는 날임에도 기꺼이 ‘매의 눈’으로 봐주신 김선중 데스크. 날카로운 지적과 살뜰한 배려로 힘을 주신 류충섭 부장까지. 진심진심 감사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사장의 폴 녹취를 따낸 건 물론, 소송 걸리면 함께 법정에서 싸우겠다며 큰소리 친 최광현 촬영기자, 고마워요.





정재기 PD | YTN 사이언스 콘텐츠제작팀

대한민국 유일의 과학전문채널 YTN사이언스가 올해로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다양하고 많은 과학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면서 과학 대중화에 앞장 섰던 YTN사이언스가 이번에는 제법 덩치가 큰 과학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4월 한 달 간 매주 방송되는 과학예능 <도전하쇼>는 대회 새롭게 주어지는 과학 미션에 도전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적인 원리와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기 위한 과학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한다는 당찬 기획의도를 가지고 <도전하쇼>는 출발했다. 하지만 사실 출연자 섭외부터 아이템 선정까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처음 기획되고 제작될 때 겪는 진통이겠지만 여태껏 시도된 적 없는 과학예능이라는 포맷의 틀을 잡으며 과학을 쉽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의도를 상충하는 것은 생각보다

7명의 멤버,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의기투합하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의도, 아이템, 시의성, 의미 등 중요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예능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도전하쇼

- 진행 _ 김일중, 김재우, 변기수, 최정문, 이현준, 김태현, 변승주
- 연출 _ 정재기, 박광은, 연재용, 김동희
- 작가 _ 서정아, 김은경, 김노을, 서혜원



것은 캐스팅, 즉 그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정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특히나 과학예능 <도전하쇼>는 과학이라는 특수한 주제 때문에 출연자 선정에 더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과학적 능력, 예능감, 출연자들 간의 케미,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했다.

가장 먼저(제일 중요한) MC 섭외, 평균적인 시청자들 입장에서 과학을 바라보고 소개할 수 있는 진행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요즘 예능과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MC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김일중 씨를 낙점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개그맨 김재우 씨와 변기수 씨, 서울대 공대 출신의 뇌섹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방송인 최정문 씨, 모델계에서 혼남으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모델 이현준 씨를 섭외했다. 또한 과학 프로그램답게 카이스트(KAIST) 수리학과에 재학 중인 김태현 씨와 서강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변승주 씨가 브레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7명의 출연자 선정을 완료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을 예능으로 재밌게 버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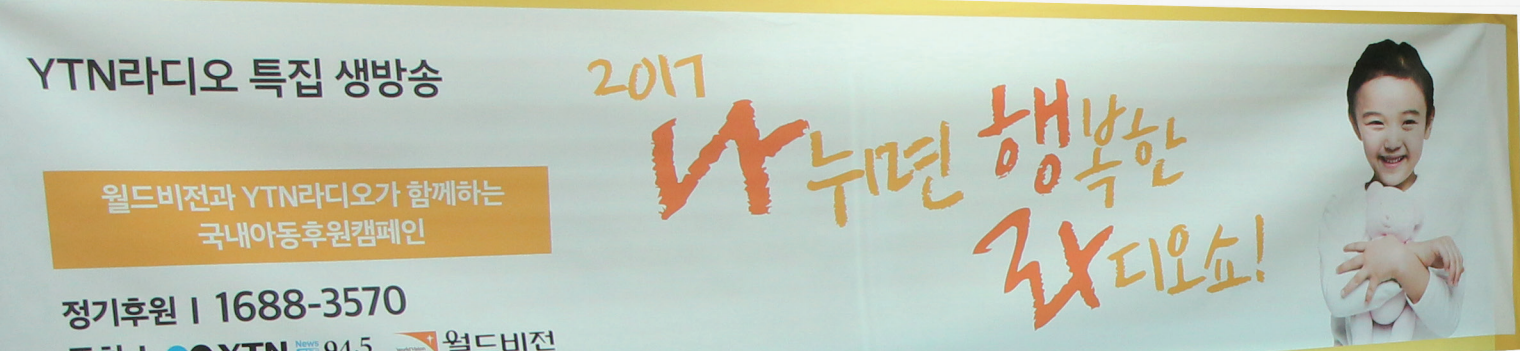
지난 2월 14일, 과학 예능 <도전하쇼>의 첫 촬영!

한겨울의 한파는 지났다고는 하지만 손발이 얼어붙는 추위는 연일 계속되었다. 핫팩으로 몸을 감싸며 분주한 스태프들 사이로 출연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30여 대의 카메라와 80여 명의 달하는 스태프들! (영상팀, CG팀, 동시녹음팀, 조명팀, 특수조명팀 등) 모든 촬영 준비를 마치고 숨죽이며 기다리는 큐사인! 모두 긴장의 연속이었고 설렘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첫 촬영 아이템은 바로 드론이었다. 정부가 올해 주목할 만한 신산업으로 발표할 만큼 주목받고 있는 드론으로 다양한 대결을 펼치는 것이 오늘의 도전 목표였다. 출연자들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고지를 통해 드론 조종 연습을 숙제로 내주고 하루가 다르게 드론 조종 실력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관찰 카메라로 담았다. 생전 처음 해보는 드론 축구와 드론 장애물 레이싱 등 출연자들의 얼굴에서도 신기함이 쉽게 떠나지 않았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엉뚱한 상상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또한 촬영이 거듭될수록 출연자들끼리의 호호도 빛이 발했다. 과학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출연자와 소위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출연자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주며 시너지를 냈다.



YTN의 첫 과학 예능 <도전하쇼>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도전하쇼>가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과학을 좋아하게 되는, 과학 대중화의 창구가 되길 바라면서, 어려운 미션에 도전을 함께해 준 출연자들과 과학을 재미있게고 쉽게 소개하기 위해 애써준 제작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한다.



굿 뉴스! YTN!을 기대합니다

김혜민 PD | 라디오 뉴스제작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진실함과 성실함은 중요한 기준이다. 이는 사람을 대할 때나 자신의 일에 임할 때 꼭 가져야 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탤런트 정애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물이다.

YTN라디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매일 2분 다큐)를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정애리 씨를 만나봤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 방송 [월~일] 10:54, 14:51, 18:54, 22:51
- 진행 정애리
- 연출 김혜민
- 작가 정선임



Q. 최근 한 방송사 퀴즈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문제를 잘 푸시더라고요.

제가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한지 11년이 됐어요. 월드비전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 나가게 됐어요. 괜히 망신당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재미있게 잘 풀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Q. 평소에 신문사설을 즐겨 챙겨보실 정도로 시사 상식에 밝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신문을 꼭 챙겨서 보라고 교육하셨어요. 자연스레 저도 매일 아침 사설을 읽고, 뉴스를 챙겨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20대에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하는 배우로서 간접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구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뉴스에는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뉴스를 읽으면서 사람과 세상을 배워가고요. 요즘엔 각 사별 만평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Q. 최근에는 뉴스 보시면서 답답하고, 속도 상하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그럴겠지만, 정말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벌써 몇 달째 같은 뉴스만 계속 나오다보니 피로감도 심하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심갖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YTN과 YTN라디오 통해 실시간 뉴스를 보고 있어요

Q. 작년에 생각지 못한 투병생활을 하시느라 드라마, 뮤지컬 등 하시던 일에서 대부분 하차하셨는데 YTN라디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만큼은 계속하셨죠. 이유가 있으셨나요?

도중에 하차한 일은 스태프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때는 일에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라디오 [나.행.쇼] 만큼은 제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사 제작진들과 월드비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방송을 준비하는지 잘 알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도움을 받고 회복되는지를 보아 왔기 때문에 제 몸이 아파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는 조손가정이나 아동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국내 위기 가정을 방송에 소개하고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지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동이 있으세요?



지혜라는 초등생 친구였는데, 엄마가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어서 매일 엄마를 안마해줘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직 어린데도 엄마걱정이 먼저인 의젓한 친구였어요. 녹음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방송에 제 울먹임이 그대로 나갔더라고요. 청취자 분들도 제 마음과 같으셨는지 많이 후원해주셨고, 한 기업에서는 그 방송을 듣고 저희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후원도 해주시는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Q. 정국이 어수선하다보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금이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청취자 분들이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를 통해 정성을 보여주신다고 하던데요

저도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행.쇼]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모금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지난 2월까지 국정농단 청문회와 특검 조사가 이뤄진 때 모금액이 최고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뉴스 채널인 YTN라디오를 더 많이 들이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수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지요.

Q. 워낙 기부천사로 알려지셨지만, 매달 천 만원씩 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부하시려면 일도 많이 하셔야 하는데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커리어를 위해, 제 자신을 위해 일하는 나이는 이제 지난 거 같아요. 이웃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게 지금의 제 몫이 아닌가 합니다.

Q. 마지막으로 YTN과 YTN라디오에 한마디 하신다면요.

세상에 좋은 뉴스를 많이 발굴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진행하는 [나.행.쇼]처럼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미소 한번 지을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좋은 소식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YTN을 Yes! Top News! 라고 하던데, 저는 굿 뉴스! YTN!이라고 외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제가 진행하고 싶네요.

노란 산수유 피는 봄이 왔습니다

이윤재 기자 | 대구경북취재본부

경북 의성에 노란 산수유 꽃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겨울 의성에 폭설이 내리고, 또 기온이 영하 16도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할 때는 이 겨울이 끝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얼른 TVU 장비 챙겨 꽃놀이 중계하러 출발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유로 제가 있는 이곳 대구·경북은 새삼 주목받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대구·경북취재본부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인 이곳 대구·경북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새누리' 간판 없이 4명의 후보가 당선되는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18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에서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물론 친박 성향의 탄핵 반대 집회도 많았고, 여전히 보수진영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변화는 진행 중입니다.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중계를 하고 있는 지국에 일거리가 2배, 3배로 많아졌습니다. 사드에 국정교과서 같은 '핫'한 이슈들이 많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든든한 선배들이 있어 걱정이 없습니다.

본부장인 채장수 선배는 전화 한 통으로 대구·경북을 취락퍼락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지역을 꿰뚫으며 현장을 뛰는 후배 기자들을 진두지휘합니다.

촬영기자 박태근 선배는 언제나 굶은일 마다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을 장악합니다. 그런 박 선배와 함께하면 언제나 든든합니다.

20년 넘게 현장을 누비고 있는 전기호 선배는 거친 다툼이 이뤄지는 현장도 마다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현장에 가면 어느 순간 제일 좋은 포인트를 차지하고 서서 가장 훌륭한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저의 든든한 사수이자 10년 가까이 대구·경북을 지킨 마당발 허성준 선배는 막히는 일, 곤란한 일로 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나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20년 넘게 지국 운전을 도맡아 온 유성래 부장은 말 그대로 인간 내비게이션입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경상북도지만 부장의 손바닥 안입니다. 덕분에 사무실로 복귀할 때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속에 기사를 쓰며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맨들입니다. 오디오와 운전을 겸하는 이경엽은 '컴퓨터 주차'와 날랜 동작으로 촬영기자 선배를 돕습니다. 코너링을 잘해서 뽑았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승환은 준수한 편집 능력과 촬영 기술로 VJ를 겸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혼자 현장을 누비는 말 그대로 '일당 백'의 자랑스러운 일꾼입니다. 언제나 듬직한 박종률과 함께라면 사드 문제로 혼란스러운 경북 성주, 또 촛불 집회 현장이나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때때로 취재진을 위협하는 시위자들 앞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제 소개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저 이 여덟분의 선·후배의 도움 속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취재하고, 기사를 씁니다. 지국으로 온 지 이제 겨우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지진, 사드, 살충제 음료수, 조희팔 사건 등등 그동안 살면서 머리에 그려보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9명의 대구·경북취재본부 식구들은 푹푹 뭉쳐서 거친 태풍도 찬란 속의 일처럼 가볍게 또 거뜰히 넘길 테니까요. 후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오른 노란 산수유 꽃처럼 말입니다.

노트북을 접고, 가방을 챙깁니다. 촬영기자 선배는 카메라 끈을 어깨에 두릅니다. 오디오맨들은 TVU를 등에 짊어집니다. 네, 우리 식구들 또 현장으로 갑니다.





초년 기자, 말레이시아 출장기

박한울 영상취재기자 | 보도국 영상취재부

시작은 어느 사건사고 일정처럼 갑작스레 일어났다.

2월 14일 집에서 '김정남 피살설' 뉴스를 봤다.

여권이 있느냐는 데스크의 질문과 함께 그대로 말레이시아 출장 선발대에 선발됐다. 비행기 출발 세 시간 전해야 결정된, 시간이 촉박해 양말 속옷 서너 개만 챙겨 떠난 제 첫 해외출장의 시작이었다.

바다 건너 도착한 땅은 완전히 새로웠지만, 그 새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공항 취재에 들어갔다.



이동규 선배와 최기성 선배가 공항 중계를 준비하는 사이, 나는 6mm를 든 채 피습 장소를 찾아다녔다. 경계가 삼엄해 출국장 키오스크에서도, 김정남이 찾아갔던 공항 의무실에서 경비원들이 막아섰다. 어렵사리 첫 중계를 마치고, 김정남의 시신이 이송됐다는 쿠알라룸푸르 병원 부검실로 향했다. 이미 많은 내외신들이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어 아수라장이었다. 그 사이를 북대사관 차량들이 들락날락 할 때, 최기성 선배는 대사관 직원에게 역살까지 잡혔다. 이 다이나믹한 첫 날을 시작으로, '쿠알라룸푸르 병원 - 말레이 경찰청 - 세팡경찰서 - 북한대사관'을 주 무대로 한 취재가 시작되었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 방송사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 "YTN은 어떻게 중계를 해요?" 타사 대부분이 송출용 장비만 들고 오거나 현지 TVU를 사용해 전송 속도 때문에 애를 먹는 사이, 우리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처럼 한국 TVU 기기에 현지 데이터 유심을 넣어 썼기에 중계 품질이 좋았다. 취재진이 많은 병원 앞, 경찰서 앞에서도 큰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했다. 물론 잔여 데이터 용량 체크를 할 수 없어, 말레이 경찰청 2차 브리핑 때에는 중계 도중 여섯 개의 유심 중 네 개가 아웃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다른 말도 들었다. "YTN은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비결은 선배들의 부지런함이었다. 선발대 때에는 현지 기자들이나 경찰들에게서 정보를 얻어냈고, 후발대가 온 이후로는 중계와 취재를 이분화해 시내를 벗어나 직접 발로 취재했다. 최기성 선배와 함께 북한 용의자 리철성이 잡혔던 집을 한국 언론사 최초로 찾아냈던 것도, 동기 김세호가 공항에서 리동일 전 북한 UN대표부 대사 단독 영상을 얻어냈던 것도 이런 발 빠른 정보 덕분이었다. 이에 더해, 마치 현지에서 프롬프트를 가져다 놓은 듯 자연스럽게 멘트를 하는 선배들의 실력은 타사 기자들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한국 시간 아침 여섯시 중계에 맞

왼쪽부터 운전기사 슈가, 양시창 취재기자, 최윤석 영상취재기자



양시창 기자



조태현 기자



추려고 적어도 새벽 세시에는 일어나야 했고, 35도를 오르내리는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기동력도 제한됐다. 하루 종일 모기와 싸워야 했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식사도 햄버거나 국수 등으로 때워야 했다. 말레이시아 공무원 특유의 느슨함 때문에, 브리핑 30분 전해야 공지를 받고 허겁지겁 뛰어갔던 적도 많았다.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최기성 선배와 최광현은 한국에 돌아와 병원에서 링거액을 맞았고, 나 또한 열흘 넘게 물갈이로 고생하고 있다.

그래도 이번 출장은 초년 기자인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먼저 선배들이 강조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누가 꼭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그 상황에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취재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 일을 확실하게 분담하고 피드

백을 주는 일의 중요함, 그리고 모든 취재의 기본은 '기다림'이라는 원칙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김한솔 입국설이 돌던 밤 부검실 앞의 기다림, 예측불가한 북한에 대비한 대사관 앞의 기다림... 이 모든 기다림이 바로 취재의 원천이었다.

특별한 친구들도 사귀었다. 운전과 먹거리부터 말레이어 통역에 취재 내용까지 챙겨줬던 현지 운전기사 '슈가'와 '모한'. 특히, 이들 중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슈가는 엄청난 친화력으로 경직될 수 있던 현장 분위기도 풀어 주었고, 언어와 문화의 벽에 막혀 있던 우리 팀에 현지 정보까지 가져다 주었다. 새벽 출근할 때부터 관련 신문 기사를 다 읽어 오고, 취재가 막힐 때면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사실을 알아봐줬던 이들은 이번 출장의 'YTN 명예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여곡절도 아쉬움도 많았던 나날이었지만, 아홉 명의 YTN인이 선배들의 경험, 후배들의 패기로 뚝뚝 뚫쳐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다. 이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고 자랑스러웠다. 다시금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팀의 짐을 조금이나마 더 나눠 맬수 있길 바란다.

사이언스 TV에 바란다

황중연 위원장 | 제4기 YTN 사이언스 시청자위원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비상임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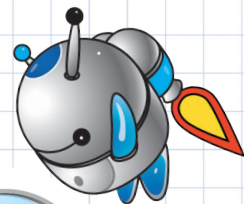


과학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궁금증으로 시작하여 이론을 예측하고, 실험과 검증을 거쳐 얻어낸 일정한 원리, 체계'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학'을 24시간 실생활과 밀착시켜 알기 쉽게 10년 동안 방송해온 사이언스TV의 제작팀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사이언스 TV는 '과학은 몇몇 특별한 전공자만이 하는 것'이라고 여겨온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이란 우리와 아주 가깝고 가벼운 상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쉬운 화두를 방송이라는 그릇에 잘 담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중들이 과학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국가적인 창의력을 결집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로운 호기심을 선사하여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으로 계속 달려 나갈 사이언스TV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더 바라봅니다.



YTN science

첫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질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 보다는 흥미 위주에 편향되어 있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률 위주의 콘텐츠 제작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재미만을 추구하기보다 콘텐츠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깨닫고, 그 속에서 본인의 미래를 투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말 그대로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지금 보다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일반 시청자들에게 과학은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변 어디서든 그리고 언제든 작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 그 자체'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콘텐츠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아니, 우리 생활은 모두 과학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물며 길가의 나무까지 모두 과학의 범주 안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중들로 하여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학 속에 살고 있구나.' 라고 깨우칠 수 있게끔 생활에 스며있는 과학 원리부터 접근해 보는 콘텐츠들을 늘려 과학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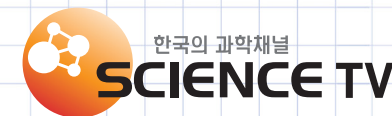
셋째,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심각하고 심오한 학문이라는 편견을 버릴 수 있게끔 과학예능 프로그램처럼 즐거운 시도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가볍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보다보면 어느새 과학지식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콘텐츠 경쟁입니다. 방송시장이 개인 위주로 가는

추세라면 개개인의 입맛에 맞게끔 개인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야 고정 시청자가 더욱 더 늘어나 채널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계 종사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제작팀 모두가 그동안 TV 모니터만을 통하여 익힌 과학 지식이나 상식들을 가지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과학지식은 물론 채널에 대한 인지도 또한 확실히 다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된 사이언스TV 프로그램을 그냥 보고 있어버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 주제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갈 수 있도록 시청자들이 궁금증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한껏 북돋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저 지나가는 방송내용으로 흘러들기보다는 집중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는 시청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이언스TV에서 이미 많은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땀나는 노력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제4기 시청자위원들 또한 힘을 모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TV가 장안의 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자와 보다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격려하는 한편 날카로운 충고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이언스TV가 추구하는 과학기술중심사회가 더 빨리 정착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이언스TV의 개국10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앞으로 사이언스TV가 맞이할 10년은 더욱 더 찬란히 빛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YTN 가족은 법무팀의 클라이언트입니다!

한혜준 | 기획조정실 법무팀

가.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법무팀 한혜준입니다. 법무팀의 협업자이자 잠재적 클라이언트이신 YTN의 가족께 저희 팀의 업무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나. 법무팀 구성

1) 이상순 팀장

법무팀을 이끌어주시는 선장이시며, 기자이자 미국 변호사인 능력자입니다. 법무팀의 업무 전반을 지휘, 관리하시고 법적인 판단과 정책적인 선택의 접점에서 판단을 내리십니다. 팀장님의 리더십으로 법무팀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2) 이선미 금융채권관리사

법무팀의 허리아자, 금융채권관리사입니다. YTN의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부실채권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 추심 업무를 진행하여, YTN의 재정 수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한혜준 변호사

최근 법무팀에 합류한 일원이자 한국 변호사입니다. 국내 법과 관련된 자문 및 계약서 검토, YTN 관련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YTN에 면접을 보던 날 난생 처음 상암동과 방송국을 방문하게 된 자로서 현재 '방송'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다. 법무팀 업무

1) 송무 관련 업무

저희 법무팀은 민사·형사·행정소송, 각종 보전소송, 채권추심

업무는 물론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 등 송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부터 참여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변호인으로서 조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 자문 관련 업무

또한 각 부서가 요청하는 법률적 자문에 답변하고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팀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영미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문 해주십시오.

라. 프로보노 (무료법률상담)

법무팀은 2017년 3월부터 YTN 가족의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 법률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사내 법률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마. 마치며

첫 출근날 팀장님께서 제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를 초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사령장을 받을 때 YTN 가족께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를 마치는 말로 대신 하려 합니다.

"YTN의 선배, 동기, 후배, 여사님들, 형님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법무팀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저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혜준
변호사

이상순
팀장

이선미
금융채권관리사

이 달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1월

특종상

금상 _ <제빵업계 1위 'SPC그룹', 달걀 사재기에 공정위 조사 무마> 보도

은상 _ <한화 3남, 폭행 영상 단독 입수... 그룹 개입 의혹 논란>



최기성 _ 사회부



권남기 _ 사회부



류석규 _ 영상취재1부



이현오 _ 영상취재1부



김영수 _ 사회부



이경국 _ 사회부

동상 _ 조순제 아들 단독 인터뷰 연속 보도



김수진 _ 데이터저널리즘팀



김현미 _ 영상취재1부

동상 _ 김무성·유승민 단독 회동... "동반 탈당" 단독 보도



안윤학 _ 정치부



강희경 _ 정치부

베스트편집상

• 동상 이상은 / 정치윤 / 연진영 / 이자은 _ 영상편집부 <2016년 10대 뉴스 영상 제작>

공로상

• 금상 이준호 _ 마케팅1팀 / 이인규 _ 마케팅3팀 <광고 매출 초과 달성 및 신규 광고주 개발 공로작>

• 동상 김윤순 _ 경영지원팀 <직장예비군 정기 감사 수행 공로>

2월

특종상

금상 _ <싼 원두로 바꾸고 커피값 올린 탐앤탐스... 소비자 분통 외> 보도



조은지 _ 사회부



최광현 _ 영상취재1부

베스트편집상

• 동상 주혜민 / 서영미 _ 제작2팀 <국민신문고 신년기획 3부작 제작>

공로상

• 금상 서영진 / 김윤순 _ 경영지원팀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 은상 송세혁 / 홍도영 _ 강릉지국 <해안침식, 백사장이 사라진다> 연속 보도

선정 이유

- 1월 특종상 금상은 대기업의 나만 살면 된다는 사재기 행태와 정부의 허술한 AI 대응을 밝혀냈다는 점, 은상은 폭행 동영상 확보로 재벌3세와 대기업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공동 동상은 최태민 일가 재산형정 과정 인터뷰로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고, 당시 여론 기사의 방향을 바꾼 기사라는 점이 각각 돋보였습니다. 베스트 편집상은 감각적인 영상의 연말 10대 뉴스 제작, 공로상 금상은 신규 광고주 개발과 매출 증액, 동상은 모범적인 직장예비군 관리가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 2월 특종상 금상은 커피 업체의 공수를 바로 잡았다는 점, 베스트 편집상은 뛰어난 영상물로 기획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점이 의미있게 평가됐습니다. 공로상 금상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헌신과 성과가, 은상은 심층적이고 차별화된 영상의 기획 기사이라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Manhattan Mural Island of Hopes and Dreams 178 x 71 cm 3D Limited Edition Serigraph on Paper 2013

찰스 파지노가 구축한 새로운 세계

홍경한 | 미술평론가



Bill Clinton and Charles Fazzino

찰스 파지노(Charles Fazzino)의 작품들은 정밀한 묘사, 입체감, 스토리, 일상의 재환기라는 네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중 섬세한 묘사는 파지노 작품에 시각적 변별력을 부여하는 요인이다. 대중 문화적 풍경을 시각이미지로 치환해온 찰스 파지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인 파리, 런던, 뉴욕, 맨해튼 등의 풍경을 매우 섬세하게 담아낸다. 흡사 설계자처럼 건물 한 채, 입간판 하나, 각종 탈 것과 날 것까지 화면 전체를 철저한 계획 아래 구성한다. 심지어 건물 사이사이 미세한 사람 동작까지 예민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D - 실크스크린 (silk screen) 기법을 이용하는 그의 작품은 입체적이고 다이내믹한 화면을 내보인다. 입체감은 이미지를 공판으로 찍은 후 이를 다시 겹겹이 오려 붙이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각각의 이미지마다 층위가 다르고 높낮이와 기복의 곡선이 다양하다.

때문에 그의 회화는 일종의 부조처럼 다가온다. 캘리포니아의 항구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정경을 담은 <Go Fly A Kite San Francisco>나 허드슨 강(江)과 이스트 강에 둘러싸인 맨해튼을 옮긴 <Manhattan Mural Island of Hopes and Dreams>, 파리의 야경과 에

펠탐을 볼 수 있는 <Midnight in Paris> 등도 모두 같은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이 같은 작업방식을 1998년부터 고수해 왔다고 한다.

친근한 스토리도 파지노 작품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조형성분이다. 그는 작품 내부에 익히 인지 가능한 풍경과 상징적 건축물, 자연물, 특정한 상황 등을 이입함으로써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시공의 사실성을 말하고, 이와 같은 이미지들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이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에게 추억과 기억의 소환을 재촉

찰스 파지노 _ Charles Fazzino

· Special Events, Commissions, and Museum Exhibition
· American Airlines JFK Terminal Public Installations · Major League Baseball All-Star Games (2003-2017) · Super Bowls XXXV-LI (2000-2017) · Olympic Games (2000-2016)
· Museum of Art, Fort Lauderdale / USA · Coral Springs Museum of Art / USA · Stevens Rugby Tournament / USA · Olympic Museum Lausanne, Lausanne / Switzerland · Arlington Museum of Art, Arlington / USA · Baseball Hall of Fame and Museum, Cooperstown NY / USA · Norman Rockwell Museum, Stockbridge MA / USA · World of Little League Baseball Museum / USA · The Hideki Matsui Museum / USA · National Jefferson Awards Museum of Art / USA · New York Drama Desk Nomination for The FAZZINO RIDE, NY / USA · Winter fest Boat Parade, FL / USA · Fort Lauderdale Centennial Celebration, Fort Lauderdale FL / USA · Pori Jazz Festival, Helsinki / Finland · Ellis Island Medal of Honor / USA · President's Council on Physical Fitness, Rockville MD / USA · NHL All-Star Game / USA · USA | NEW YORK | Daytime Emmy Awards, NY / USA · Winter fest Boat Parade, FL / USA · Belmont Stakes, NY / USA · CMA Awards Olympic Games, Don Mills, ON / Canada · GRAMMY Awards National Art Museum of Sport, Indianapolis, IN / USA etc.

한다. 즉, 시각경험의 축진을 통한 이야기의 재발견을 유도하는 셈이다.

그의 작품들은 대면하는 순간 우리네 마음 속 어딘가 숨어 있던, 혹은 저장된 기억이 재생되거나 재생된 기억이 현재를 반추하도록 만든다.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내려티브는 환기가 되어 일상의 낮섬을 잉태한다. 분명 익숙한 시공간이지만 무한한 상상의 창을 통해 일상 속 새로운 경험을 자극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극은 본래의 자기가 상실되어 있는 무자각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자각적 존재에 도달하려는 우리의 비습관적 사고를 흔들어 놓는다.

물론 <Mind Your Money>처럼 동시대인들의 맹목적 삶의 일부를 재생 - 자각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작품도 없지 않다. 이 그림은 여타 작품들이 그러하듯 이미지 자체의 '보임'을 넘어 사회적 비판 의식을 특유의 밝은 감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시 문명 속에서 숭배하는 자본의 가치와 그에 비례해 소비되고 소모되는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단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를 문화담론을 담아내는 의미체로 파악하고, 다양

한 맥락으로 전개되는 언어적 양상과

구조를 해체하려는 작가의 의지아말로 그의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일상의 재구성 혹은 이상적 무대인 듯 보이지만 내적으론 인간과 사회, 현실과 이상, 실존과 사유로써의 인간, 의미적 삶에 당면한 인간의 보편성을 역설적으로 화사하게 담아 놓고 있다는 것이다.(이 부분은 꽤나 매력적이다. 그렇기에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찰스 파지노와 유사한 작업방식을 지닌 작품들이 곧잘 등장했던 적이 있다.)

한편 에디션을 만들지만 원화 에디션이라는 독특한 방법론에 포박되는 파지노의 그림들은 원색 계열의 밝고 따스한 색감, 하나하나 정성어린 입체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공을 필요로 한다. 세밀한 플롯을 짜고 일일이 시퀀스를 짜 맞추는 과정은 척 봐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보는 이들을 그가 만든 동화 같은 세계에 놓이도록 하며, 더 넓은 상상의 장소로 이동시킨다. 파지노는 그렇게 일련의 프로세스와 사적 의미들을 통해 우리를 일상 속 일상 밖의 장소로 인도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elebrating the EnchantedIsland of Singapore 102 x 71cm 2015



Come Fly With Me Come Fly Away in NYC 102 x 71cm 2015



흑과 백을 아우르는 '당찬 여성' 신세대 앵커 이 세 나

White vs. Black

善 vs. 惡

진실과 거짓이 혼돈하는 2017년.

앵커란...

균형감, 신뢰감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세상을 아우르는 나는,

YTN 뉴스 앵커

'이세나'다.

화보 콘셉트 _

오롯이 인물 그 자체의 특성과 자기 표현에 주목하는

러시아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

올레그 도우(Oleg Dou)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음

정리 | 김여진 앵커

| 협찬 | *Creta* 크레타 스튜디오
www.creta.com / 02_3142_0010, 0070
촬영 / 임혜란 실장
디렉터 / 최재용 (커뮤니케이션팀)

Q. 역대 앵커의 변신 중 가장 과감한 시도였는데 촬영을 하고 난 소감이 어땠는지?

先 설렘, 後 걱정이었어요. 돌이켜보면 대학생 때는 레게 스타 일 빼고 안 해본 머리가 없을 정도로 튀는 걸 좋아했거든요. 남들과 다른 콘셉트로 촬영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신났어요. 그런데 막상 촬영을 하고 나니 걱정되더라고요. 파격적인 시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앵커로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아닐지 하고요. 그런데 '앵커의 변신'인 만큼 '이세나가 이런 면도 있구나!'하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Q. 한정 사상 최초의 탄핵 등 굵직한 사건을 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였나?

무엇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숙제였어요. 앵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하는 게 옳다고 배웠거든요. 앵커멘트를 할 때도, 대담 때 질문을 할 때도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니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따라가는 게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Q. 뉴스의 균형을 잡기 위한 나만의 노력은?

일단 SNS에 떠도는 뉴스들은 잘 안 봐요. 요즘은 가짜 뉴스가 워낙 많다니 구미가 당기는 제목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해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경우도 가십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선별해서 보고 있어요. 방송 전에는 매일 주요 방송사들의 종합 뉴스와 신문 기사도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인간 이세나, 어떤 사람인가?

질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사실 빈틈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은 '현무암'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 혹시 실수할까봐 한번 두 번 더 챙기다보니 이제 꼼꼼하다는 소리까지 종종 들어요. 또 빈틈을 메우려고 꾸준히 무언가를 배워요. 자정 뉴스를 진행하고 육아를 하면서 대학원 수업

까지 듣고 있어요. 집에 와서는 골프도 배우고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싶으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다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Q. 기상 캐스터 출신 앵커인데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는지?

지진 특보 때도 대담이나 시청자 인터뷰를 할 때 다른 사안보다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또 기상 캐스터로 활동할 때 워낙 야외 중계를 많이 했거든요. 중계는 특히 애드리브가 많은데, 그 경험들이 생방송을 할 때 큰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당황하고 떨리는 상황에서 재빨리 평온을 찾는 방법도 그 때 배웠죠.

Q. 자정 뉴스 외에도 <오늘의 건강>, <이럴 땐 이런 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PD들의 러브콜을 받는 비결이 뭔가?

방송을 할 때 스태프들과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면 결과물도 좋고요. 이런 생각이 PD들과 맞다보니 저를 찾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일단 구관이 명관이잖아요. 2006년 입사해 오래 회사에 있다 보니 많이 믿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영광이죠.

Q. 10년 뒤 어떤 앵커가 되어 있을까?

제가 22살 때 방송을 시작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보니 어느덧 32살의 제가 된 것처럼, 하루하루 주어진 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러다보면 10년 뒤에는 꽤 괜찮을 앵커가 돼 있지 않을까요? 뉴스 잘하는 앵커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 좋은 앵커'가 되고 싶어요. 10년 뒤에, "이세나 앵커 정말 방송 잘하지?" 보다 "이세나 앵커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고 싶네요.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어려운 음악 vs. 쉬운 음악

유석현 앵커 | 국민신문고

• 어려운 음악 -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BWV.1001~6

과연 와이프도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될까?

아무리 어려운 음악이라도 듣고 또 듣고, 또 듣다보면 마침내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속에 CD를 플레이어에 올렸다. 그리곤 같은 음반을 틀나는 대로 계속 반복해 틀었다.

그렇게 한 달 쯤 지났을까?

어느 날 음악을 듣던 와이프가 “지금 나오는 음악 무슨 곡인지 참 좋은데”하고 한마디 했다. 오케이!!!! 드디어 성공!! 이 감격, 이 흥분... 내심 재재를 부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가운데 파르티타 2번의 끝 곡 샤콘느”

며칠 뒤 아마도 주말이었나?

난 느긋하게 같은 음반을 플레이어에 넣고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 더 높였다. 몇 분 지났을까? 마놀님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온다.

“시끄러워요. 다른 걸로 바꿔줘요!”
“뭐가 잘못된 거지? 볼륨이 좀 높았나?”

물론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가 결코 듣기 쉬운 곡은 아니다.

3곡의 소나타와 3곡의 파르티타 구성돼있지만 그냥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로 불리며 전체 연주 시간이 2시간이 약간 넘는 긴 곡이어서 익숙해지려면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곡 이름 자체를 보라.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한마디로 반주 없이, 아무런 악기의 반주 없이 바이올린 혼자 연주하는 소나타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귀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에 와 닿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음악에 푹 빠지게 되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 (나만 그런가?)

바흐의 또 다른 무반주 곡인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보라.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반주 없이 첼로 독주로 연주되는 1번부터 6번 까지 6곡으로 구성된 이 곡은 특히 1번 가운데 전주곡이 유명하다. 광고 음악으로 쓰이다보니 친근한 곡으로 자리 잡았고 휴대폰 벨소리로도 채택되고 있다.

물론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도 파르티타 3번의 첫 곡 전주곡과 세 번째 곡 가보트는 드물게나마 광고 음악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곡이다. 파르티타 2번 가운데 맨 끝 곡 샤콘느 전체 곡 가운데 가장 길며 -14분 정도- 2개의 현을 동시에 활로 켜는 ‘더블 스톱’, 4개의 현을 동시에 울리는 ‘울트라C’ 같은 어려운 기교를 요구해 능숙한 바이올리니스트들조차도 선뜻 연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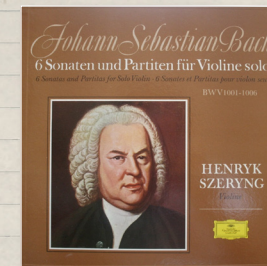


어려운 난곡이다.

독일의 음악학자이자 음악사학자인 필립 스피타(1841~1894)는 “샤콘느는 물질에 대한 정신의 승리로 아무리 위대한 바흐라 해도 이 같은 곡은 두 번 다시 쓰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샤콘느는 바이올린 음악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천 음반]

‘바이올린의 성서’로 불리는 곡인만큼 내로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부분이 녹음을 남겼지만 그 중에도 헨릭 셰링(그라모폰), 아르튀르 그뤼미오(필립스), 김수연(그라모폰)의 연주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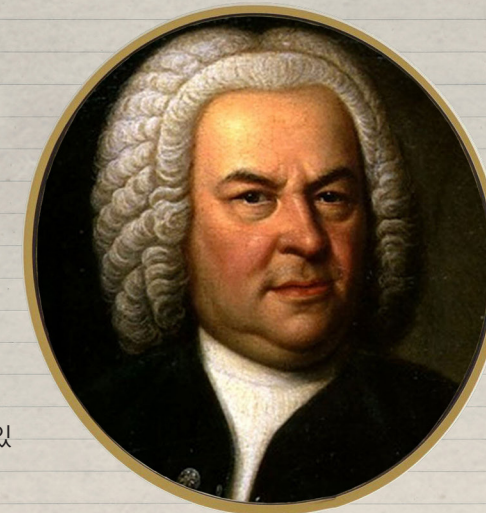


셰링은 소나타에서 녹음한 음반도 있지만 그라모폰 반이 훨씬 더 무르익은 연주를 보여준다. 냉철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주로 이 곡의 대표적인 음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뤼미오는 다가가기 쉽지 않은 곡을 아름답고 낭만적인 연주로 듣는 이를 사로잡는다. 대학에 다닐 때 라이선스 음반으로 처음 접한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가 바로 그뤼미오의 연주여서 내게는 첫사랑과 같은 음반이다.



1987년 독일에서 유학생 부부의 딸로 태어난 김수연은 정경화가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지난해 5월 LG 아트센터에서 휴식시간 포함, 3시간에 걸쳐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를 완주했다. (한국말도 잘한다) “샤콘느는 여행에서 돌아와 아내의 죽음을 알게 된 바흐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작곡한 곡으로 이 곡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바흐가 느꼈을 슬픔과 외로움, 감사의 마음을 김수연은 부드럽고 따뜻한 연주로 전해준다.



음반을 구입한다면 알레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같은 춤곡들로 구성된 파르티타를 먼저 들을 것을 권한다. 유튜브에도 전곡이 올라온 것도 있고 샤콘느만 올라온 것도 있다.

• 쉬운 음악 - 라벨의 볼레로

라벨이 발레음악으로 작곡한 것으로 볼레로는 빠르고 격정적인 스페인의 춤곡을 말한다.

라벨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통속적인 명곡으로 이 곡을 쉬운 음악이라고 한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멜로디가 똑같은 리듬으로 모두 19번 반복되는 특징 때문이다.

주제 선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변주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듣다보면 그냥 익숙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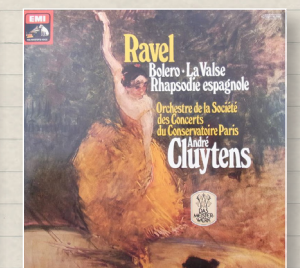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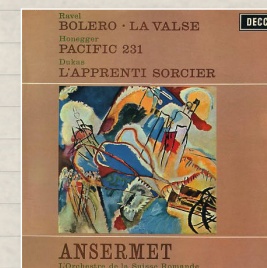
10분 정도의 길이로 전 곡이 C장조로 일관되며 처음부터 끝까지 크레센도(Crescendo: 점점 강하게)로 돼있다.

그러다보니 플루트의 약한 음으로 조용하게 시작되는 곡이 끝에 가서는 오케스트라의 총 합주로 볼륨이 절정에 달하면서 마무리된다.

[추천 음반]

에르네스트 앙세르메 지휘, 스위스 로망드 관현악단 연주 (데카), 앙드레 클뤼탕스 지휘,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EMI)의 연주를 추천한다.

앙세르메는 화려한 음색으로 유연한 연주를, 클뤼탕스는 우아한 볼레로를 들려준다.



영화평론가 최광희의
영화가 그린
세상<원티드>와
아름다운 퇴장

최광희 | 영화평론가

영화 <원티드>(2008)는 끝내주게 재미있는 영화였다.

무엇보다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간다는 물리적 고정 관념에 반기를 드는 역발상은 얼마나 참신하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은 <매트릭스>(1999)의 네오(키아누 리브스)가 선보였던, 그 유명한 '볼릿 타임'의 시각적 충격을 능가할만한, CG 미학의 압권이라고 불려도 과찬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총알이 커브를 틀어 날아갈 수 있다는, 가상의 물리학을 제시하는 이 영화의 창의적 비주얼은 내게 단순히 신기해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건 어쩌면 이 영화가 가르키는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는 그것을 '전복'이라는 코드로 읽고 싶었다. 고정 관념에 대한 상상력의 전복, 낡은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의 전복, 또는 억압자에 대한 피억압자의 전복.

웨슬리(제임스 맥어보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 애인을 가로챈 동료에게 한방 먹이는 과정은 성장과 극복의 플롯에 따라 만들어진 주인공의 개인적 전복이므로 차라리 지극히 전형적으로 보인다. 나를 매료시켰던 것은 두 가지 대목이었으니, 암살단의 조직원들이 모두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과, 그 운명에 순응하는 폭스(안젤리나 졸리)의 위대한 결단이 결행되는 순간이다.

암살단원들이 모두 정의로운 사명감에 불타는 인물들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그냥 그 일을 하게끔 돼 있는 사람들이다. 암살단이란,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응징을 통해서만, 그것

도 살인이라는 폭력적 방식을 통해서만 기능하는 집단이다. 게다가 임무를 수행하는 킬러들은 자신의 총알이 박힐 인물이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그것은 이 조직의 치명적인 모순이다.

웨슬리는 이런 모순에 아주 잠깐 의문을 제기하지만 힘에 대한 욕망에 압도된 그는 무적의 킬러로 성장한다.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목도하게 된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암살단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 모순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암살단을 향해 총구를 겨눈다. 자신을 만든 숙주를 파괴하려 드는 그의 행동은, 역시 암살단원이었으면서 암살단의 정당성을 회의한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임과 동시에 정의를 세우려고 조직됐지만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하게 된 구악(舊惡)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작 구악을 제거하는 장본인은 방금 전까지 그의 반대편에서 총구를 겨누고 서있던 폭스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폭스는 주저 없이 그의 동료와 그 자신의 관자 놀이를 향해 360도 회전 총알을 발사한다. 그리고 장렬하게 사라짐을 택한다. 총알이 차례 차례 단원들의 머리를 관통한 뒤 폭스를 향해 돌진하기 직전,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평정심의 자태를 보라. 그리고 마침내 총알이 그녀의 머리를 관통하는 순

간, 감독은 이를 웨슬리를 중심에 둔 화면의 흐릿한 중경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숭고한 결단에 역설적인 찬미를 바친다. 암살단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들의 임무는 끝났다. 조직의 리더 슬론(모건 프리먼)은 그 운명을 거부함으로써 현재의 힘을 수궁하려 든다. 그러나 폭스는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전복을 완성한다.

모든 낡은 것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것이었다. 모든 부당한 것들은 처음에는 정당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러 낡고 부당함은 운명적으로 폐기의 순간을 맞는다. 그래야 역사가 진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자가 된 그들은 저항한다. 이미 얻어진 현실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전복의 시도를 부당한 것으로 몰아붙인다. 외부의 것을 적대시해야 자신의 부당함이 가려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슬론이 웨슬리를 키워 놓고 그를 악의 축으로 몰아 '실용적으로' 제거하려 드는 것처럼 말이다.

영화 <원티드>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중첩됐다. 사라짐을 안타까워하는 저 몸부림들의 향연. (우이독경이겠지만) 웬지 그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다. 슬론을 닮지 말고 폭스를 배우시라고. 정의로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폭스의 사라짐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겠는가.



Number & Talk

청년^{靑年} 양방언^{梁邦彦}

피아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음악만큼이나 열정과 패기가 가득 차 있다.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력, 삶의 희망과 자유를 늘 노래하는 꿈의 탐험가이자, 지금도 여전히 록 페스티벌을 즐기며 음악적 영감을 찾아 적극 나서는 행동과 뮤지션.

솔로 데뷔 20년, 음악 인생 30년을 넘긴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언의 삶을 들여다본다.

취재 | 김여진 앵커

| 협찬 | withpiano

music into your life
since 2007
www.with-piano.com
010-2786-9374

2030 | 솔로 데뷔 20년, 음악 인생 30년

"작년은 솔로 데뷔를 한 지 20주년이었어요. 그동안 경험이 적지는 않았지만 아주 많다고도 생각 안 해요. 이게 저를 항상 흥미롭게 하는 부분이지요. 10년 후 어디로 가야 할 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나고 설렙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 영감을 얻거나 자극을 받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경험한 영상 작품이나 인물, 올림픽 같은 행사 등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영감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곡의 행보가 결정 되는 거죠. 제 만남과 경험을 통해 나온 영감을 최대한 곡에 반영하고 싶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죠. 하지만 저는 그다지 신경을 안 써요. 시간은 멈출 수 없고 흘러가는 거니까. 산꼭대기에 열심히 올라가 보니 다른 정상이 보이고, 또 다른 고개에 올라가 이번에는 저 꼭대기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며 즐기다보니 어느새 20년이 지나갔어요."

1960 | 태어난 해

"(나이는) 제 머리 속엔 없는 숫자예요. 하하하~ 원일곱 살이 되니 옛날 일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신의주 출신 어머니와 제주도 출신 아버지가 도쿄에서 만났고,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난 일련의 일들 속에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뜻을

찾아야겠지요.

여기서 잠깐

재일 한국인 출신 양방언 씨는 도쿄에서 태어나 30년 동안 북한 국적으로 살아오다 33살 때인 1993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당연히 제 뿌리와 남다른 어린 시절이 음악에 영향을 줬어요. 제 고유의 인생이 녹아든 음악은 다른 사람의 것과는 분명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 삶의 근원 자체를 주제로 해서 음악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듣고 가슴에 와 닿는 게 시작이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알아보니 제 배경이 이렇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0 | 가출할 당시 수종의 돈, 50만 원

"무슨 숫자인지 딱 알겠어요. 하하하~ 가출할 때 50만 원 밖에 없었어요. 가출해 생활하기에는 정말 적은 돈이었죠. 의대를 졸업한 뒤 마취과 의사로 일했는데요. 1년 정도 됐을 때 음악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렸죠. 당시 1년차 의사 수입이 한 달에 27만 원 밖에 안됐으니 돈을 모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중에 딱 50만 원 뿐 이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모두 의사나 약사였어요. 다섯 형제 중 막내였는데 다른 직업의 선택지가 없는 상태였죠. 제가 음악을 선택한다는 건 집에서 제 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었어요. 물론 저도 그 사실을 알

고 있었고, 며칠 간 준비해 어느 날 새벽 가출을 감행했죠.

일찍 세상을 떠신 아버님 외에는 결국 가족 모두 받아들이셨어요. 음악을 하며 드는 후회는 없지만, 아버님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게 가장 큰 후회예요. 지금도 사실 인정을 못 받은 채 음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해야 해요.”

03.28

1997년 생애 첫 단독 공연일

/도쿄 시부야 오차드홀

“첫 공연 날이에요! 사실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지만 공연을 했던 날짜는 이상하게 기억을 거의 다 해요. 시부야 공연장을 구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오차드홀이 3천석 이상 되는 곳인데 전설적인 공연장이거든요. 소속사 사장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안 믿었어요.

공연 날 객석은 거의 꽉 찼죠. 2천석 가까이 찼던 걸로 기억해요. 그 공연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는 들어서지 못했던 곳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말이죠. 음악을 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처음 맛봤어요. 이후 지금까지 ‘건강한 중독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하하하~”

7

지금까지 발매한

정규앨범 수

“영상 작품의 작곡이나 공연 의뢰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걸 우선적

으로 하게 돼요. 마감 시한이 있으니까요. 제 앨범을 내고 개인 활동을 하는 건 늘 마지막으로 미뤄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얻은 영감을 다시 솔로 음악에 반영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빨리 빨리 작업하는 성격은 아니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확신을 가졌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죠.



제가 만든 음악은 모두 다 제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연주곡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한데요. 제가 만든 작품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CF에 나온다거나 다른 장르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애착이 가고 자랑스럽고, 그런 작품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제 피가 흐르는 작품들요. 제목은 연주곡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야말로 ‘입구’잖아요. 입구를 제시한 후에는 관객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064

영감의 원천, 제주도의 지역번호

“제주도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버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한국을 찾았을 때 제일 처음 간 곳이 제주도였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아버님에게 제주도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자랐어요. 상상으로만 그려졌던 풍경을 직접 보고, 향기를 접했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그 순간 ‘Prince of Jeju’라는 곡이 탄생했어요. 제주도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저를 당기는 것 같아요. (‘Prince of Jeju’의 왕자는 양방언?) 아뇨, 저 아니예요~ 하하하.

2013년 해녀 박물관에서 제게 연락을 주셔서 해녀의 노래를 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원래 있던 해녀의 노래가 가사는 우리 말인데 선율은 일본 행진곡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군국시대 일본 선율을 해녀의 노래로 썼는지 진짜 충격이었죠. 이걸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해녀의 노래’를 작곡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제주도를 향한 저의 애정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연도

/개·폐막식 음악감독 담당

“저를 포함해 음악 감독 4명(양방언, 원일, 이병우, 홍동기)이 평창 올림픽의 색깔과 통일성을 고려하며 많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당연히 할 만한 일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때 다음 개최지인 평창을 알리는 행사가 10분 배정돼 있었는데, 그 때는 우리 ‘아리랑’을 집중적으로 알렸어요.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채워질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즐겨 해왔던 기존 음악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평창 개·폐막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인 제작은 이제부터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월에 어울리는 추천곡은?

“민트 아카데미(Mint Academy)라는 곡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조카가 미국 대학에 입학했을 때 문득 제 학창 시절이 생각났어요. 전 의대 출신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캠퍼스 낭만이 없었죠. 어두운 병원에서 매일 지내고, 정말 재미없었어요. 조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이 멋진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거니는 풍경을 상상하며 이 곡을 작곡했어요. 음대에서 그런 생활을 꿈꿨던 제 부러움이 담긴 곡이죠.”

About 양 방 언

- 1960년 일본 도쿄 출생
- 니혼의과대학 졸업, 마취과 의사 1년 활동
- 1996 크로스오버 뮤지션으로 솔로 데뷔
- 2002 부산아시아간계주제곡 ‘Frontier’ 작 편곡
- 2007 임권택 감독 영화 ‘천년학’ 음악감독
- 2007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음악감독
- 2012~2014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회식 차기 개최지 공연 음악감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

36

37



간부 워크숍 <우리는 무슨 꿈을 꾸는가?> _ 2. 5



사이언스 TV 시청자위원회 위촉식 _ 2. 22



중소기업 중앙회 주관 <제1회 중소기업에 빛낸 영웅상>
언론미디어 부문 (주) YTN 강소기업이 힘이다 수상 _ 2. 28



확대간부회의 기획조정실장 <간부 워크숍> 보고 _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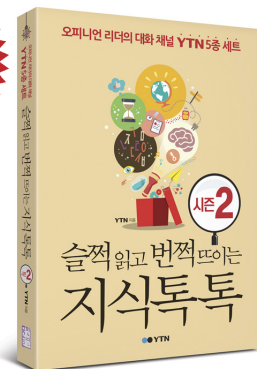


NHN 한국사이버결제 _ YTN 업무제휴 협약식 _ 3. 8



식음료 기업 홍보 임원 초청 YTN 매체 설명회 _ 3. 15

신간



"정보 홍수의 시대, 누구나 손쉽게 핵심 교양지식을 두루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 YTN이 자신 있게 내놓은 교양 지식백과사전"

• 슬쩍 읽고 번쩍 뜨이는 지식톡톡 시즌 2
[오피니언 리더의 대화 채널 YTN 5종 세트]

- 지은이 : YTN
- 출판사 : 국민 출판사
- 발행일 : 2017년 3월 15일
- 페이지 : 320쪽
- 값 : 15,000원

3D 팝아트의 거장 Charles Fazzino 찰스 파지노 초대전 Exhibition Invitation



2017. 3.1(수) ~ 4.30(일)

24시간 오픈 갤러리

YTN ARTSQUARE

협찬

BRUNO
ART GROUP

IN AND
OUT ART

SOUL ART SPACE

뉴스는 YTN? 뉴스도 YTN!

대한민국 뉴스채널 YTN이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도약합니다.



한국의 뉴스채널 ●● YTN 24

고품질 모바일 방송 ●● YTN DMB

한국 유일의 보도전문 라디오 ●● YTN NewsFM 94.5

한국 최초 과학전문 채널 ●● YTN science

프리미엄 생활정보 채널 ●● YTN life

70만 해외동포를 위한 방송 ●● YTN WORLD

스마트 모바일 라이프의 리더 ●● YTN PLUS

서울의 중심 ●● YTN 서울타워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 YTN

Exclusive Tomorrow

